



전북도서울장학숙, 서초구 보건소에 물품 기부

전북도서울장학숙(관장 정종복)의 직원과 인사생들이 서초구보건소(소장 우선욱)에 감사 편지와 물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과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최영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편지와 물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의료진을 위로하고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에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감사 편지는 서울장학숙 학생 자율회(자율회장 양유진)에서 직접 준비했다.

서울장학숙에 생활하는 50여 명 인사생들이 직접 쓴 손 편지에서 의미를 더했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전북도서울장학숙 직원들과 인사생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일선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남원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전달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29일 남원농협 용남지점, 남원새마을금고 남부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예방한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용남지점 창구직원 조00(30세, 여)은 고령인 고객(80세, 여)이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려고 요청 중, 눈이 충혈되고 시선을 회피하며 횡설수설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어 적극적인 설득 및 112에 신고 피해를 예방했다.

이동민 서장은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했기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비전대, KERIS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장려상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실시한 제1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 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에서 VR 콘텐츠를 활용 학생들의 흥미를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본상인 장려상을 받았다고 29일 전했다.

이 대학 치위생과는 구강해부학 강의에 VR로 제작한 구강해부 콘텐츠를 사용해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VR 구강해부학 콘텐츠에 접속해 선행학습을 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복습에도 활용하도록 했다. 이 콘텐츠는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VR장비를 장착하고 AR로 구현된 구강 해부도를 보고 만지며 구조를 익히는 프로세스다.

이에 따르면 VR 콘텐츠를 활용해 수업을 실시한 결과 이전에 비해 학생 학업 성취도가 16% 가량 높아졌고, 학생들은 공간적 제약 없이 상시로 해부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VR 기반 해부 실습 수업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미정 학과장은 "VR 기반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자 주도 수업이 가능해졌다"면서 "학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해부학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의료원, 긴급구조지원기관 행안부 장관상

남원의료원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능력평가는 국가비상사태 긴급구조종합훈련 시 소방안전대책 강화 등 소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표창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남원의료원이 최초로 선정되어, 타 의료원에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의료원은 평소 지역사회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응급재난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는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지원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우수한 훈련과정을 선보인 바 있다.

박주영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

국민연금, 지역사회 공헌형 인재 양성 장학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9일 전북지역의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역 인재 10명(총 1000만 원)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역사회 공헌형 인재양성 장학사업'은 지역사회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 선정은 단순히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2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ESG 관련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실제 경험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 1차 심사는 소속 학교 2차 심사는 지자체,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최종 심사에 선정했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생 대표와 대학원생 대표 총 2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공단이 올해 처음 시작한 이번 장학사업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ESG 경영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ESG 경영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기계공고 이예원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이예원 학생이 2021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전국의 고등학교와 청년 우수인재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2021 대한민국 인재상에 전북기계공고 3학년 이예원 군이 선정됐다.

이 군은 기계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건전한 직업관을 갖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영미이스터 인재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이 군은 기계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전북기계공고에 입학해 그동안 학업과 기계 및 자동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특성학교·마이스터고 대상 발명대회인 IP마스터에 참가해 전국 100명 내에 올랐고, 당시 팀의 주재였던 2학년 탈착식 안전 작업화를 특허출원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학년 2학기에는 현대자동차 영미이스터 인재 채용 부문에 합격했다.

이예원 학생은 "저는 직원과 고객 모두의 안전한 공장을 만드는 공정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쌓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정은성 기자



전북 차세대 기업인 클럽, 사랑의 장학금 기탁

전북 차세대 기업인 클럽(회장 이주철)이 전북교육청에 사랑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서 이주철 회장을 비롯한 정지용 부지회장, 방인섭 고문, 심동섭 사무국장 등 임원진 4명도 도교육청을 방문해 전한 교육감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전북 차세대 기업인 클럽 회원은 총 40명으로 건설업, 제조업, 환경전문업에 비호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젊은 대표들의 모임으로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공유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장학금을 기탁해 준 전북 차세대 기업인 클럽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



고를 통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철 회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화손해사정, 1000만원 상당 방한키트 기탁

남원시는 29일, 한화손해사정(대표이사 문정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방한키트(KIT) 100세트(환가 1천만원 상당)를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키트에는 방한용품, 개인방역용품, 응급약품 등 총 8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원시회복지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관계자는 "의지할 곳 없는 타국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은 도움이지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현익 주민복지과장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지원에 앞장서 주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이미숙 회장 나눔

남원시 인월면은 29일, 전북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이미숙 회장이 인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유 6박스(환가액 : 120만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1대 전북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으로 취임한 이미숙 회장은 인월면 여성의용소방대장, 남원시 여성의용소방연합회장으로 그동안 어르신들 코로나예방접종 수송봉사 및 방역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로 홀몸 어르신들 60명의 안부와 영양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이은주 인월면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틈새 없는 복지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서한국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29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에 필수품인 연탄기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전주시 김승수 시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 최강성 사회공헌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된 300만 원 상당의 연탄은 전주 연탄은행을 통해 전주시 관내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되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은 "전북은행 임직원의 급여 성금으로 마련된 이번 연탄지원으로 취약계층이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적인 나눔을 펼침으로써 내내 기부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임직원 급여 1%를 성금으로 조성해 올 한해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삼계탕 나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등을 펼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국안전공사,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29일 소방청이 주관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기관 자체의 긴급구조훈련과 법정부적으로 펼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대한 평가에서 소방안전 대책, 재난대응 부문의 역량을 꾸준히 높여온 데 따른 평가다.

공사는 올해도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함께 석유비축·가공 시설, 정보통신망 시설, 공동주택 등 국가핵심 기반시설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치료센터 등에 대한 상시적 특별 점검을 강화해 왔다.

박지현 사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기관의 근본 사명"이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구조지원 안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시설공단, 늘푸른마을 입주민들과 중고물품 기증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에 헌 옷과 신발 등 중고물품 200여 점을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중고물품 기증은 시설공단 직원들과 전주시 송천동 소재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늘푸른마을은 미혼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로 전주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들이 입주해 있다.

기증된 물품들은 굿윌스토어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은 "중고물품을 기증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과 봉사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